

제주주소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씁시다!

주님 공현 대축일 | 2019. 1. 6.(다해) 제2141호



양병주 분도 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신앙적 안목을 키워나가자!



『삼국사기』의 「온달(溫達)전(傳)」에 의하면 평강공주는 어릴 때 너무 울어서 아버지 평원왕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 뒤 커서 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 평원왕은 명문귀족 집안 자제에게 공주를 시집을 보내려 했지만, 공주는 이를 거부하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보 청년 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공주는 그곳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봉행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여 훌륭한 장군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온달전」의 이야기는 그 당시나,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는 허구적인 면이 짙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만,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기록 된 것이라 허구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일화에서 평강공주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공주 신분으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빛나고 떠들썩한 구세주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이 어두웠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 공현의 날’에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의 목동들과 동방박사들뿐이었습니다. 그 중 동방박사들의 안목은 탁월합니다. 구세주를 수 천 년 간 기다려온 유다인들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이민족들인 그들이 어떻게 ‘구세주의 드러내심’을 아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그들이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인물인 평강공주, 그리고 오늘 기념하는 동방박사들 모두 평소 안목을 지닐 준비를 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각자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와 실천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박현찬 도미니코 신부 | 1대리구청 사목차장



“함께합시다!”

찬미예수님!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하느님의 큰 은총이 교우님들의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년 평신도 희년을 보내면서 평신도로서의 소명의식과 실천적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교구의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구장님께서는 2019년 사목교서에서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씁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본당이 특별히 2019년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냉담교우 초청행사와 그들과 함께 거행하는 참회와 화해의 예식을 가지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당과 단체들은 불우이웃 돋기 바자회나 도농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평신도위원회에서는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더욱 알차게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적 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오니, 모든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바랍니다.

1.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교회로 초대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2.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교회를 떠나있는 냉담교우들을 초대하여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3. 우리 교회의 외짝교우·자녀·부모를 교회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신앙생활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구대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적어도 비신자 한 분을 예비자로 모시거나, 냉담교우 한 분을 회두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느님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는 대림절 판공성사의 숫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구장님께서는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본당과 개인에게 시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복음화운동을 통하여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생활 속에서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 우리 교회의 여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반석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습니다.”(요한1서 2,17)

2019년 새해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일동

성탄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

“저의 성탄 소망은 형제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을 통해 “행복한 성탄절 소망”으로 “형제애를 기원”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느님

교황은 성탄의 의미가 “하느님은 선한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한 아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형제적 사랑 없이는, 공정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삭막하고 공허”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한 성탄을 맞아 제가 소망하는 것은 형제애를 위한 소망입니다.”

형제애

교황은 국가, 문화, 이데올로기, 종교를 떠나 모든 개인들 가운데 형제애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성과 차이점들은 모자이크 작가가 다양한 색상의 타일을 이용해 작품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요의 원천”이 된다고 교황은 설명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결속시키시며, “형제애의 힘과 토대”가 되어 주신다.

구체적 속고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니카라과와 관련해 형제애가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화해의 분위기가 지속돼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형제애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길 기원했다.

교황은 현대적 형태의 식민지화로 인해 “자유와 주체성”을 위협받는 이들, 굶주림과 교육, 의료 혜택의 부재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적대적 상황 속에서 성탄을 기념하는 이들에 게는 모든 소수 민족들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존중 받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끝으로 교황은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서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 약한 이들, 취약한 이들, 버려진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했다. 교황은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고 있음”을 알고,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자매인 것”을 깨달아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희망했다.

2018년 12월 25일 바티칸 뉴스
Sr. Bernadette Mary Reis, fsp / 번역 | 김단희

축복 기도

- 켈트족의 기도 中에서 -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을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 두개의 동전이 남아 있기를
 당신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체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늘 당신곁에 있기를
 아멘.

지혜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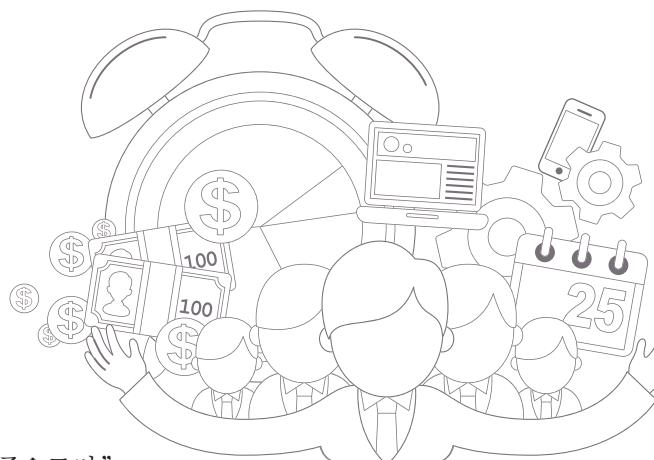
부(富)

“영성(靈性)이 저처럼 세속적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더 가지도록 도와줄 것이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스승이 말했습니다. “덜 가지고 싶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60,1-6	제 2 독 서	에페 3,2,3-5-6	복 음	마태 2,1-12.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교구장 동정



총대리동정

2018.12.31(월) | 교구청 종무 미사
1.2(수) | 성베네딕도 수도회 사제·부제 서품식
1.3(목)~6(일) | 부제반 성지순례

2018.12.30(일) ~ 1.5(토) | 재유럽 사제 모임

2019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부제 서품식 : 2019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사제 서품식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례 :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 입장권이 없어도 프란치스코 성당(1층)과 드망즈홀(2층)에 시간 제한 없이 자유입장 가능

2019년 대구주보가 새롭게 바뀝니다!

1면	사진작가 양병주 분도의 묵상사진	2면	주일의 말씀(강론)
3면	주의! 유사종교 박용욱 신부의 사회교리 선교의 현장에서 송영민 신부의 지구를 지켜라!(생태 환경)	4면	바티칸 소식 마진우 신부의 기도 해설 소울스테이 / 교구 내 피정의 집 소개 문화와 영성
5면	기독의 창, 지혜의 숲 / 기도로 배우는 외국어(하반기)		

우리 다 함께

박성규 엘리지오

대구주보 애독자님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소

그리고
올해에도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교우화두와 선교

열심히
뛰어보입시데

